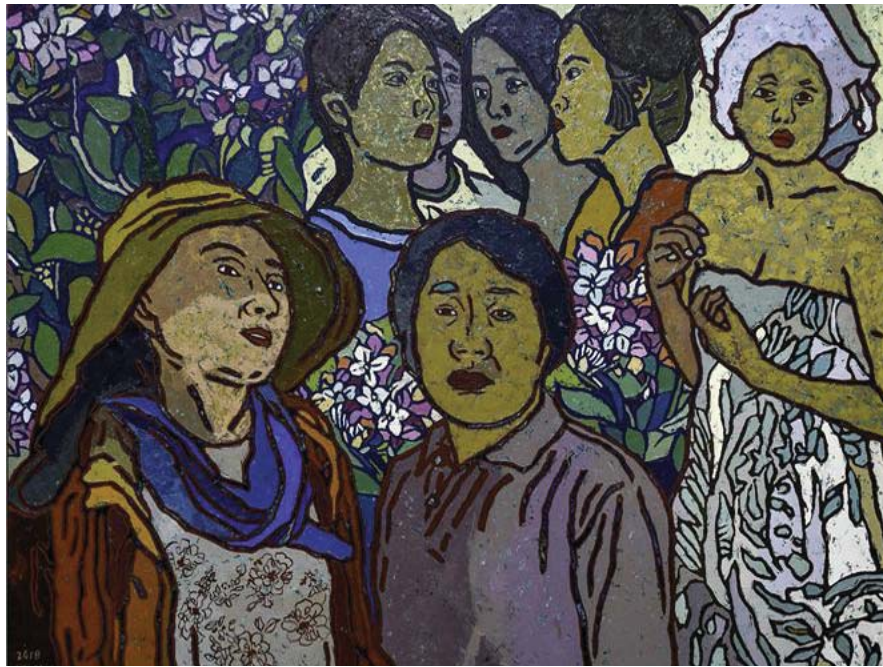




# 화양연화,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을 꿈꾸며

김순관 작가 이아 초청 13년 만에 개인전 열어 애환 교차하는 지난날 고해성사 같은 화폭들



‘화양연화-동행’ (2018).

정년이 되어 교직에서 물러난 작가가 꺼낸 화두는 ‘인연’이다. 그는 이웃과 가족, 살아오면서 관계를 맺어 온 슬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슬픔, 갈등, 좌절도 있었지만 영화 제목으로 친숙한 ‘화양연화(和樣年華)’처럼 아름다운 날들이 더 많았다.

제주 김순관 작가가 추억 속 장면처럼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을 담아낸 작품들로 개인전을 연다. 김 작가는 교직에 있는 동안 6차례 개인전을 가졌고 1996년엔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비엔날레 청년작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번 개인전은 2007년 이후 13년 만에 마련됐다. 유화 물감을 이용해 작가 특유의

선묘 방식으로 그려낸 ‘화양연화’ 연작은 어느 시절을 기록한 사진처럼 다가온다. ‘망중한’, ‘만찬’, ‘기쁜

날’, ‘가족’ 등 작가의 하루를 들여다보는 듯 하다. 지금, 여기의 삶은 평온해보이지만 먼저 가신 이들의 회상이 있었다. 작가는 ‘동백꽃이 떨어지던 날’을 통해 제주섬의 비극을 잊지 말자고 한다. 지치고 힘든 ‘퇴근길의 일상’ 속 꽃을 배경으로 엮으려 기도하는 ‘엄원’을 통해 작가는 이 땅의 평화를 빈다.

이경모 평론가는 이들 작품에 대해 “현실적 삶과 이성적 반성의 충돌과 조화를 통해, 욕망적 삶으로 접목된 과거에 대한 일종의 고해성사, 혹은 여러 가지 개별적 스토리들로 응축된 관찰 일기와도 같은 뒤얽스를 짚게 풍긴다”고 했다.

옛 제주대병원에 자리한 예술공간 이아 초청전 공모에 선정된 전시로 9월 10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린다. 개막 행사는 9월 12일 오후 4시, 10월 10일 오후 2시엔 작가와의 대화가 예정됐다. 문의 800-9300. 진선희기자

## 작지만 빛나는 개인의 서사를 담다

고권 서울 개인전 ‘계절들’ 사계처럼 약동하는 존재들

이 세계와 삶을 향한 예찬을 담아낸 그림들이 전시장에 걸렸다. 제주 고권 작가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에 있는 갤러리 그리다 기획전으로 여는 개인전 ‘계절들’이다.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열세 번째 개인전에서 고권 작가는 계절의 흐름처럼 그 변화에 주목한 작품을 펼쳐놓는다. 몽환적인 꽃들과 풍경을 배경으로 반려동물들 품에 안고 걷는 사람, 성장하는 젊은 이들, 자화상이 연상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 모두는 ‘약동하는 이들’이란 공통점을 지녔다. 부지런히 견고 응시하고 반응한다. 작가는 “시작하는 봄, 폭발하는 여

름, 되돌아보는 가을 그리고 꿈꾸는 겨울. 이 무심하고 커다란 흐름 안에 작고 빛나는 개인의 서사들이, 지지귀는 생명들이 있다”며 “그 섬세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화폭에 옮긴다”고 했다. 그는 이 전시와 함께 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2020 포커스 아트페어 포르투(Focus Artfair Porto)’에도 참가한다. 갤러리 연락처 02)720-6167.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권의 ‘개를 안고 가는 여자’ (캔버스에 아크릴릭, 2020).

## 문화가 쫓겨

### 제주문협 ‘제주문학’ 83집

제주문인협회(회장 고은진)는 최근 제주문학 여름호(제83집)를 내놓았다.

이번 호 새롭게 만든 특집은 ‘동인문학을 찾아서’로 제주아동문학협회, 제주시시인협회, 제주수필문학회, 제주어류수필문학회를 첫 순서로 소개했다. 또 다른 특집은 제주에총주최로 진행된 온라인 문화예술축전 스테이플 갤러리 시화전 지상전으로 그 현장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이 한장의 사진, 시·시조·아동문학·수필·단편소설·희곡·평론 등 회원작품도 실렸다.

###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사단법인 제주작가회의(회장 강덕환)가 계간 ‘제주작가’ 2020년 여름호(69호)를 냈다.

이번 호 특집은 ‘다시 강정을 묻는다’로 한진오 작가, 최혜영 강정활동가, 김동현 평론가의 글을 실었다. 또 다른 특집으로는 4·3 72주기 제주교통방송 라디오다큐드라마 중에서 조미경 작가의 ‘소녀의 스케치북’과 김진철 작가의 ‘수상한 집’ 시나리오를 담았다. 기획연재 ‘제주 환상을 겨누다’에선 강정호 사진가의 눈으로 송악산 문제를 살폈다.

### 계간문에 ‘다층’ 여름호 발간

제주에서 만들어내는 계간문에 다층이 2020여름호(통권 제86호)를 묶었다.

기획특집엔 박몽구의 ‘욕망, 소유 넘어 아름다운 동행으로’, 권성훈의 ‘사회적 몸의 통치와 여성주의 욕망’을 실어 ‘현대사와 욕망’을 살폈다. ‘젊은 시인 7인선’은 정창준 이병국 노수욱 최유리 박순희 김병상 홍계숙의 시를 주목했다. ‘젊은 시조시인 3인선’에서는 박복영 윤행순 하수미의 작품을 소개했다. ‘다층 소시집’은 허문태, 박환호 시인이 꾸었다.

### 제주아동문학협회 창작집

제주아동문학협회(회장 김정애)가 최근 서른아홉 번째 연간 창작집 ‘콩클리쉬 할머니’를 펴냈다.

이번 창작집에는 동시 작가 11명, 동화 작가 15명이 참가해 55편의 동시와 15편의 동화 등 총 70편의 작품을 실었다. 표제작 ‘콩클리쉬 할머니’는 실버영어교실에 다니게 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주아동문학협회는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의 키도 자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 詩(시)로 읽는 4·3 (74)

### 인민항쟁가

입화

원수와 더불어 싸워서 죽은 우리의 죽음을 슬퍼 말아라 깃발을 덮어다오 붉은 깃발을 그 밑에 전사를 맹세한 깃발

더운 피 흘리며 말하던 동무 쟁쟁히 가슴 속 올려온다

동무야 잘 가거라 원한의 길을 복수의 굽은 피 솟음침니다

백색 테러에 쓰러진 동무 원수를 찾아 떨리는 총칼 조국의 자유를 팔려는 원수 무찔러 나가자 인민유격대

입화(林和)는 경향파 시인으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카프)을 대표한다. 박헌영에게 매료돼 남로당 노선을 걸었다. 1947년 미군정의 탄압을 피해 월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에 참여했으나 1953년 8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군사재판부에서 ‘미제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당했다. ‘조선 최고의 작곡가’로 알려진 김순남(金順男)이 작곡하고 입화가 작사한 ‘남조선 빨치산의 노래’와 박찬모(朴贊謨)가 작사한 ‘제주도 빨치산의 노래’가 잘 알려져 있다. 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 인민들의 4·3투쟁사’에는 “그들은 간고하던 항일무장투쟁의 나날들을 회상하며, 또 그때마다 혁명의 각종 노래로써 사기를 돋우며 모든 곤란과 슬픔을 이어 나갔다. ‘제주도 빨치산의 노래’, ‘남조선 형제를 잊지말라’, ‘전평의 노래’, ‘유격대 행진곡’, ‘나팔수의 노래’, ‘적기가’, ‘해방의 노래’, ‘추도가’, ‘민전가’, ‘인터내셔널’ 등의 혁명가요를 성난 파도와 같이 드높게 부르며, 항쟁의 기량을 불렀던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인민항쟁가’는 김순남이 작곡해 남·북조선 모두에서 애국가처럼 불렀다. 김순남이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미군정의 식량정책의 실정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발발한 대구 10월사건(十月事件)을 기리기 위해 1946년 작곡한 노래다. 미군정은 계엄령을 내리고 친일 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동원하여 잔인하게 진압했다. 김순남도 ‘인민항쟁가’를 작곡해 체포령이 내려지자 월북했다. 남한에서는 80년대 이후 일부 운동권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으며 KBS교향악단이 노래를 연주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제주4·3 추모앨범에 수록되기도 했다. 입화가 작사하고 김순남이 노래한 ‘해방의 노래’는 다음과 같다. “조선의 대중들이 들어 보아라/ 우렁차게 들려오는 해방의 날을/ 시위자가 울리는 발굽 소리와/ 미래를 고하는 아우성 소리// 노동자와 농민들은 힘을 다하여/ 놈들에게 빼앗겼던 토지와 공장/ 정의의 손으로 탈환하여라/ 제놈들의 힘이야 그 무엇이랴”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 카메라를 통해 본 제주의 전통시장

### 곽상필 사진집 두 권 발간

제주 사진가 곽상필씨가 ‘카메라를 통해 본 제주의 전통시장’ 사진집 I~II권을 나란히 냈다.

이번 사진집은 ‘상필이가 만난 사람들’ 시리즈 열일곱 번째로 마련된 오일장 사진전에 맞춰 제작됐다. 곽상필 작가는 8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주시오일시장, 세화오일시장, 고성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오일시장, 함림오일시장, 함덕오일시

장, 표선오일시장, 성산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이 서는 날에 맞춰 사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집에는 오일장 사람들과 풍경이 흑백 화면에 담겼다. 두 권에 실린 사진은 180점이 넘는다.

곽상필 작가는 뇌경색으로 지체·언어장애를 겪고 있지만 1999년 이래 ‘상필이가 만난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곳곳의 현장과 사람을 기록한 사진전을 펼쳐오고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부끄럼의 바람에

백광의 초대展

2020. 08.01 0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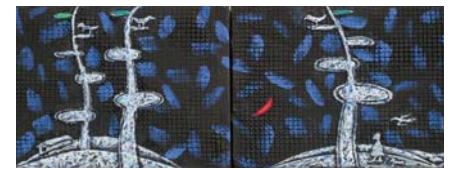
8월 1일 (토) 오후 3시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41×24cm | 2020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45cm | 2019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27×19×2cm | 2020



오름위에서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42cm | 2020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61×43cm | 2019



오름위에 부는 바람 캔버스에 혼합재료 | 45×27cm | 2020

### 관람시간 안내

평일 | Open 11:00 | Close 18:00 | 주말 (토, 일) | Open 11:00 | Close 17:00 | 휴관 : 매주 월요일 | 문의 : 064-750-2543

Gallery IED

제주시 서사로 154 한리일보 1F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문을 연 ‘갤러리IED’가 ‘제주, 제주 너머’ 3인 초대전을 성황리에 마치고, 두 번째 전시로 백광의 작가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백광의 작가는 제주 토박이로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성장했고 현재 까지도 고향 제주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추상미술 첫 세대의 작가입니다. 오름, 별, 바람 등의 소재를 추상화한 백광의 작가의 그림은 그동안 제주 미술의 정체성을 알려 왔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여러분 깊숙이 잠들어 있는 감성과 영감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리일보는 ‘갤러리IED’를 통하여 제주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좋은 전시, 보고 싶은 전시를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